

하이힐이 발을 망친다

美조사 만성통증·기형·피부경화 일으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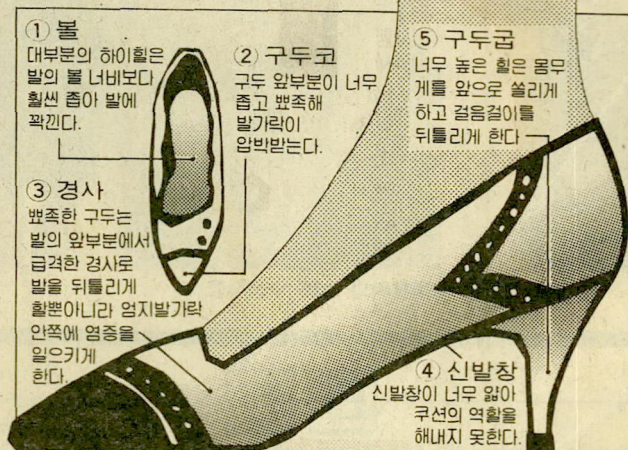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리를 드러내고픈 여성들이 하이힐을 많이 찾게 된다. 그러나 정형외과이나 足病學者들은 「하이힐을 신는 것은 위험속으로 걸어들어가는 짓」이라고 경고한다.

최근 미국의 「발 및 발목 정형외과 의사협회」가 하이힐을 늘 신는 여성 3백6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들중 80%가 만성적인 발의 통증, 기형, 염증, 티눈, 피부경화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해 의사들은 「세발가락 동물을 위한」 좁은 구두코, 딱딱한 보드를 걸을 때 받는 충격을 흡수해주기에는 너무 얇은 구두바닥, 딱 끼는 볼, 걸을 때 몸무게가 온통 앞쪽으로 쏠리게 해 걸음걸이를 흐트러뜨리는 뒷굽 등이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88%가 자신의 발길이나 볼 너비보다 작은 구두를 신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고 의사들은 발에 맞



지도 않는 「유리구두」를 억지로 신는 이들 「신데렐라의 의붓 자매들」이 겪는 고통은 그리 놀랄 것도 없다고 말한다.

하이힐을 성토하는 의사들은 제화회사들도 잘못이 있다고 공격한다. 즉 제화회사들은 하이힐이 연출해내는 긴 다리, 가는 발목의 매력을 상품으로 파는데만 열중할 뿐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관심 밖이라는 것이다. 볼이 넓고 구두코가 둥글어 좀 더 편안한 구두를 만들어내기 보다

는 매장에 좀 더 폭신한 카펫을 깔아서 하이힐 착용자가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데 힘쓴다고 비난한다.

이들 의사들은 「하이힐을 사려거든 하루 일과를 마친 뒤, 즉 발이 부어올라 있을 때에 사라」 「구두를 파는 상인들은 처음에는 좀 끼는 듯 해도 신다보면 편안해지니 일단 신어보라고 하지만 이 말을 절대 믿지 말라. 일단 신고보면 당신의 발이 망가진다」고 경고한다. 【外誌】

加,泥炭이끼로 천연패드 개발 모세관식 확산...항상 건조 "장점"

○...합성물질 대신 泥炭이끼를 사용한 천연 위생대가 등장했다. 존슨 앤드 존슨사가 개발한 매우 얇고 흡수력이 높은 이 천연생리대는 그 무게의 12배에 해당하는 액체를 흡수한다고 이 회사는 밝혔다. 15년에 걸친 연구 결과 내놓은 갈색의 이탄 생리대는 수주일전 캐나다의 잡화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미국에서도 멀지 않아 시판될 계획이다.

회사 연구진은 몬트리올에서 지난 10년간 해양의 해면물질과 기타 천연물질을 이용, 세계 여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합성

물질 생리대의 대체품 개발에 전념해 왔다.

이 이탄이끼 패드는 흡수력이 보통 제품과 비슷하면서도 그 두께가 5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착용감이 훨씬 좋다. 더욱이 이끼는 천연의 식물로서 액체를 패드의 중심부로부터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모세관식으로 확산시켜 패드를 건조하게 유지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한다.

이 신개발 패드의 핵심원료는 가공처리된 이끼이다. 보통 생리대가 흰색인데 비해 이탄의 이끼는 갈색이어서 소비자에게

게 다소의 이질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

존슨 연구소의 상품개발부장 패트리셔·래머시에리는 조사결과 여성의 70%가 현재 사용중인 생리대가 충분한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이탄 생리대가 이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충분히 해소해 줄것으로 기대했다. 이 회사는 이탄 이끼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캐나다 퀘벡의 광활한 지역을 임차하여 이곳에서 원료를 수거, 가공처리한 다음 몬트리올의 제조공장으로 보내고있다.

존슨 앤드 존슨 최대의 경쟁사인 프록터 앤드 갬블사와 킴벌리-클라크사는 이끼생리대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AP】